

그림으로 읽는 한 소설가의 내밀한 개인사

《그림 속 나의 인생》 펴낸 소설가 김원일씨

“콜비츠의 그림을 알게 된 후 한편의 소설보다 한장의 그림이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굶주림과 가난을 것처럼 절실하게 표현한 화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. 그의 예술에서 드러난 역사성과 현실성은 어쩌면 제 소설과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”

김원일씨(58)가 미술 산문집 《그림 속 나의 인생》(열림원)을 펴냈다. 김씨는 《불의 제전》《마당 깊은 집》 등의 분단소설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중견 작가. 이 책은 그가 지난 해 《국민일보》에 ‘김원일 그림사랑’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은 것이다. 이 책에는 밀레의 <이삭줍는 여인들>, 클림트의 <키스> 등 고전적인 작품에서 피카소의 <아비뇰의 처녀들>, 뒤샹의 <샘> 같은, 새로운 양식을 창조한 현대적인 작품까지 모두 50편의 그림에 관한 지은이의 산문이 실려 있다.

한 소설가의 역정을 전시한 ‘마음의 화랑’

이 책에 실린 글들은 단순한 그림 감상문이 아니다. 제목에서 눈치 챌 수 있듯, 김씨는 한편의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가 살아온 내력, 문학관 등을 슬그머니 끼워넣는다. 밀레의 <만종>과 일리아 레핀의 <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>를 말하면서 이념을 좇아 월북한 아버지를 얘기하고, 루오의 <성스러운 얼굴>을 보며 스물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우를 떠올린다.

또 구분용이 시인 이상을 그린 <우인의 초상>을 보며 “이상 나이만큼만 살다 자살하기로 결심”했던 치기어린 문학청년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. 서문에 써어 있는 “한장의 그림을 통해 화가의 생애를 보며, 나의 삶과 문학을 그 이미지에 접목시켜 보았다”라는 말은, 이 책이 그의 지난한 인생역정을 전시한 ‘마음의 화랑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학창시절 화가가 되기를 열망했던 그는 틈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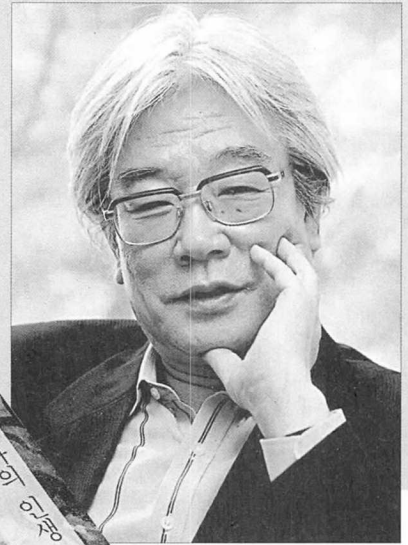
나면 공책에 낙서를 했다.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의 초상화를 베끼고, 모딜리아니의 그림 <잔느 에뷔텔의 초상>을 며칠에 걸쳐 모사하기도 했다. 그리고 각종 미술대회에 나가 수차례 입상도 했다. 그러나 그는 화가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.

“그림을 그리고 싶었죠. 하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. 아버지가 월북한 후 집안 사정이 급속히 어려워졌습니다. 먹을거리가 없어 대구시장바닥에서 과일 껍데기를 주워먹던 시절이었습니다. 제대로 된 물감이나 붓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.”

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마음이 끌린다는 김씨는 자신의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화가로 주저없이 콜비츠를 꼽는다. 그는 콜비츠의 목판화 <프롤레타리아>시리즈 가운데 하나를 그의 소설 《환멸을 찾아서》의 표지화로 쓰기도 했다. 또 장편 《불의 제전》을 집필하는 동안, 그는 늘 콜비츠의 화집을 곁에 두고 지칠 때마다 펼쳐봤다.

“콜비츠의 그림을 알게 된 후 한편의 소설보다 한장의 그림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굶주림과 가난을 것처럼 절실하게 표현한 화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. 그의 그림에 담긴 역사성과 현실성은 어쩌면 제 소설과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”

그림을 보는 동안에도 그의 타고 난 이야기꾼 기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. 그는



김원일씨

열림원/A5변형/258면/9800원



김종태가 그린 <노란 저고리>의 복스런 미

인을 보며 한 여인의 고단한 하루를 상상한다. 또 모네의 <임종을 맞은 카미유 모네>를 보며 죽은 아내의 곁을 서성거리는 한 예술가를 떠올리기도 한다.

“그림은 나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었다”

“모네의 <루앙 대성당> 연작이나 <연꽃> 같은 작품보다는 <임종을 맞은 카미유 모네>처럼 ‘이야기가 있는 문학적 작품’이 제게는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. 모네의 그 그림을 보면서, 아내의 주검 곁에서도 본능적으로 빛의 변화를 관찰하는 화가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.”

대학 졸업 후 무작정 상경한 그가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은 국민서관이다. 그는 17년 동안 그곳에 근무하면서 백과사전을 만들었다. 교정을 보다 눈이 아프면 그는 백과사전의 원색 도판을 뒤적이며 그림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다. 그 시절, 그림은 그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. 그는 이 책의 맨 앞장에 이렇고 적고 있다. “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고통과 절망, 그 전율에 자신을 불태워버리고 싶을 때 그림은 구원이 될 수 있다.” - 최갑수 기자